

2-4 51번 이름: 강채원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여의도 공원

나는 엄마와 희연이와 함께 여의도 공원에 갔다. 가서 광운이 오빠를 만났다. 그래서 같이 자전거를 타며 놀고 엄마와 이모도 자전거를 빌려서 탔다. 타면서 쌩쌩 달리며 아주 멀리 까지 갔다. 그런데 오르막 길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아주 열심히 패달을 밟았다. 내리막 길이 나오면 소리를 지르며 "야호"라고 외쳤다. 모두 같이 쌩쌩 달릴때 힘차게 내려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타니까 신나고 재미있다는걸 알았다. 또 12시가 되자 오빠는 할머니 댁에 가야된다고 하며 가서. 희연이와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다가 놀이터에서 비밀 장소를 찾아서 재미있고 즐겁게 놀았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어서 희연이와 함께 맛있게 냠냠 먹었다. 그런 다음 2인용 자전거를 번갈아 타다가 배급파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택시를 타며 이야기를 종알종알 나누며 갔다. 즐겁고 재미있었다.